

# 전주역사(驛舍) 전면개선 힘 모은다

전주시가 낡고 협소한 전주역사의 문화재급 전면개선과 세계무형유산 포럼 전주 개최를 전북지역 정치권에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5일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도내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전통문화관 경영당에서 열린 '국회의원-도·시군정책협의회'에서 전주역사 전면개선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이 지난달 26일과 28일 열린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의 간담회와 새누리당 전북도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재차 협조를 요청한 것은

## 시, 국회의원 - 도 - 시군 정책협의회서 건의

전주가 문화특별시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호남의 관문인 전주역은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후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지어진 지 35년이 경과하면서 대합실을 비롯한 내부시설과 주차장 등 각종 제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협소해 전면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전주는 연간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1,000만명에 육박하고 최근

'온니플래닛'이 전주를 전 세계 여행객들이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관광명소 3위로 선정하는 등 전주역을 이용한 국내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광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시장은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고 전주의 첫 인상 개선을 위해 전주역사의 전면개선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시장은 대한민국 지역문화

지수 1위이자 깊은 역사와 문화자원을 지닌 가장 한국적인 도시 무형문화유산인 보존·계승·발전시켜온 무형유산의 보고인 전주에서 오는 2018년 제1회 세계무형유산포럼이 열릴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역은 전국 KTX 역사 중 가장 오래됐지만, 서울역을 제외하고 지난해 이용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역이다"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전주에 첫 발을 내딛어 전주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대표 관문이자 호남의 관문인 전주역을 문화재급 한옥으로 전면 신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내달 30일까지 진행

전주시는 허위 전입신고자와 무단 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 허위 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된 세대 △북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시는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위

해 통 담당공무원과 통장으로 합동조사반 편성하고 해당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와 주민등록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일홍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을 통해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등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며 "사실조사를 위한 조사원의 가정 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더운 날씨엔 물놀이가 최고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른 지난 5일 어느 초등학교를 찾은 어린이들이 대형 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농장주 카드 훔쳐 현금 인출

농장주의 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해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5일 농장주의 카드를 훔쳐 현금을 몰래 인출해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전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11일 오후 9시40분께 익산시 성당면 한 농협에서 C(52·여)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67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체크카드에 들어 있던 현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자신의 조카 계좌로 이체해 가로채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의 농장에서 4년 넘게 농사일을 한 전씨는 농장주가 "채를 먹고 하자. 먹고 싶은 걸 사와라"며 건넨 체크카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재 기자

## 현직 경찰관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수사 착수

현직 경찰관이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7분께 전북 김제시 만경을 한 저수지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A(43)경사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사는 전날 퇴근 이후 가족들에게 "잠 늦을 것 같다"는 전화를 마지막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경찰은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저수지에 숨진 채 빠져 있는 A경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A경사의 가족들과 동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 덕진소방서, 심리상담실 운영

전주덕진소방서(강원석 서장)는 오는 9월초까지 소방서 직원들의 외상 후스트레스(PTSD)장애를 예방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은 현장업무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잇따른 순직 사고 및 사고현장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를 외부 전문가

의 심리상담을 통해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심리상담의 인식전환을 위한 통합교육 및 사전 설문조사 실시 후 전문 심리상담사와 1:1 심층상담(비공개)으로 치료가 이뤄진다.

강원석 서장은 "이번 상담실 운영으로 소방관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로, 심신건강을 증진하여 전북도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U-20월드컵 전주 홍보대사 선정

이동국 선수·가수 국카스텐 10일 홈경기서 위촉식 가

전주시가 2017 FIFA U-20 월드컵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도시답게 대회 알리기에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K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전북현대모터스FC의 이동국 선수와 MBC 음악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의 '우리동네 음악대장'으로 주목받은 4인조 락 밴드 국카스텐을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전주 홍보대사로 선정할 것.

이번 U-20 월드컵 전주 홍보대사 위촉은 지난 5일 조지위 홍보대사 선정 이후 국내 6개 개최도시 가운데 처음이다.

시는 오는 10일 열리는 K리그 클래식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이동국 선수와 국카스텐에 대한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홍보대사 국카스텐의 특별 공연이 마련돼 있어, 축구 열기로 가득 찬 전주성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대사에 선정된 이동국 선수는

/김영재 기자

## 덕진구, 공무원상 상금 어린이 환자 의료비 지원

덕진구(구청장 정태현) 생활복지과(과장 송채욱) 희망복지 지원팀은 지난 5일 전주에서 수여한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 상금 30만원을 질병으로 입원 치료중인 어린이 환자에게 전달하고 위로했다.

올해의 공무원상은 전주에서 소통·화합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차별화된 감동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과 부서를 선발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전주시 367개 팀

중 덕진구 생활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덕진구 생활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은 지역의 이웃돕기 자원을 발굴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 아이들의 작은 소원 들어주기 공모사업'을 비롯해 '중고 화분 기증판매', 거동불편 어르신들 위한 '뽕송뽕송 이불빨래 봉사',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후원을 받아 추진한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오붓한 하루', '저소득 아이들

의 작은 소원 2만' 등 적극적으로 차별화된 다양한 결연사업을 추진해왔다.

희망복지팀은 올해의 공무원상 상금 30만원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데 뜻을 모으고 이제 막 100일이 된 아기가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미혼모 가정에 상금으로 전달했다.

이금안 희망복지지원팀장은 "올해의 공무원상을 받게 되어 자랑스럽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